



권연경. *갈라디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13.
 ----- *갈라디아서 산책*. 서울: 복 있는 사람, 2018.

저자에 대해서

저자 권연경은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풀러신학교(1994, M.Div.)와 예일대 신대원(1996, STM)을 거쳐 런던 킹스칼리지에서 갈라디아서의 종말론 연구로 박사학위(2001, Ph.D)를 받았다. 공부를 마친 후 뉴욕의 한인교회에서 약 3년간 부교역자로 섬겼고, 2003년 귀국하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안양대학교를 거쳐, 2011년부터 송실대 기독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권연경 박사는 갈라디아서에 대한 두 권의 책을 출판하였다. 2013년에 처음으로 출판한 "*갈라디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위선 영성에 빠진 교회를 향한 사도의 권면"이라는 소제목으로 갈라디아서를 주석한 책이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세가지의 장점을 말하자면, 첫째, 갈라디아서를 현대인의 언어로 쉽게 번역된 본문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연경은 주석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를 현대인의 언어로 그리스어 본문을 한글로 직접 번역하였다. 그의 번역으로 개역개정판 성경의 문장의 모호함을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다.

두번째, 갈라디아서에 대한 목회적인 주석을 읽을 수 있다. 학문적이면서도 가장 복음적인 주석이라 말할 수 있다. 신구약 성경에 대한 많은 주석들이 있으나, 이 주석 만큼 둘 간의 균형을 맞춘 주석을 찾기란 쉽지 않다.

세번째, 갈라디아서의 단락 구분 만으로도 갈라디아서를 알 수 있게 했다. 일반적으로 성경책에 있는 단락의 구분이 아니라, 저자가 직접 원문에 근거해서 단락을 구분하고, 각 단락에 대한 표제어를 붙였는데, 그 표제어 만으로도 갈라디아서를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해 놓았다.

2018년에 출판한 "*갈라디아서 산책*"은 2013년의 갈라디아서를 주제별로 확장 시켜서 알기 쉽게 정리해 놓았다. 매우 세부적인 배경설명과 주제별 해설은 지금까지 보았던 갈라디아서에 대한 책들 중의 으뜸이다. 아래에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에 대한 핵심적인 주제에 초점을 두어서 갈라디아서를 읽고 싶다면, 이 책을 읽을 것을 추천한다.

아래에는 각 책들의 목차들을 정리해 놓았다. 목차만 보아도 각각의 책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를 명료하게 살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13년 출판한 주석 형식의 책을 보기 편하도록 성경본문과 병렬하여 설교에 용의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 부분은 A3로 작업하였으므로, 성경 공부를 목적으로 한다면, 주석의 부분은 A3로 출력하여서 두번째 책과 함께 읽는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갈라디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1장

인사말

뒤집어진 감사: 비난과 저주-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의 복음의 기원

회심 전후의 행보

- 회심 이전의 바울
- 바울의 소명과 그 이후의 행보
- 첫 예루살렘 방문

2장

제2차 예루살렘 방문

- 방문 정황과 목적
- 할례: 사도들과 거짓 형제들
- 무할례의 복음을 인정한 사도들

안디옥 사건

- 사태의 전개와 바울의 질책
- 율법의 행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 베드로의 행동에 대한 신학적 비판
- 율법에 대한 바울의 입장

3장

갈라디아인들의 어리석음: 성령을 버리고 육체로?

믿음의 모범 아브라함

- 아브라함의 이신칭의
- 아브라함에게 미리 전해진 복음

그리스도 사건: 율법의 저주가 아브라함의 복으로

- 율법의 저주와 이신칭의
- 율법의 저주에서의 속량, 칭의, 그리고 성령

약속은 율법에 우선한다

율법과 믿음

- 율법은 죄를 다루기 위한 것이지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다
- 율법의 부정적 기능은 믿음의 긍정적 기능을 돕기 위한 것이다
-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 아브라함의 씨, 유업을 이를 상속자

4장

양자 됨과 유업

회심 이전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음

복음에 대한 태도 변화로서의 관계 변화

진정한 원수들

바울 사역의 목적

사라와 하갈의 알레고리

- 율법의 증거: 두 여인, 두 언약
- 알레고리적 해석
- 이방 선교 상황에서의 적용

5장

의의 소망: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복음에 머물라

사랑: 새로운 형태의 종노릇

양자택일: 성령과 육체

- 성령과 육체의 대립
- 육체의 행위들
- 성령의 열매
- 회심의 의미

6장

그리스도의 법

자기가만에 대한 경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나눔

뿌리는 대로 거두는 삶의 진리

육체를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

십자가를 자랑하는 바울

마지막 인사와 경고

갈라디아서 산책

1부 갈라디아서 분위기 파악하기

01 상황 속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글 / 상황 속의 복음 읽기 / 생활 속의 언어 / 상황 파악의 중요성: 자신을 살피라(고전 11장) / 상황 속에서 읽는 갈라디아서

02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 바울의 상황 인식

상황과 관점 / 배교하는 갈라디아인(1:6-10) / 성령을 떠나 육체로(3:1-5) / 돌아섬, 그리고 다시 돌아섬(4:8-20) / 달리다 만 경주(5:7-8) /

03 상황 파악하기: 갈라디아 교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갈라디아 문제에 대한 전통적 해석 / 전통적 해석과 '완벽한 순종'이라는 전제 / 할례 / 절기 준수와 음식 규정 / 율법 준수? / 선동자들의 태도 / 갈라디아인들의 태도 / 갈라디아 교회와 '율법의 행위'

04 갈라디아 위기와 '율법의 행위들;" 이방 신자들은 왜 할례를 받으려 했을까?

갈라디아 성도들의 의도 / 할례의 의미 / 유대인의 선민사상 / 유대인의 배타적 선민의식과 기독교 / 배타적 선민의식과 바울의 이방인 선교 / 안디옥 사건과 칭의 / 아브라함과 칭의 / 새 관점과의 차이

2부 상황 속의 복음: 바울의 신학적 대응

05 바울 구원론의 미래적 관점: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삶

바울의 미래지향적 관점 / 수확을 고대하는 씨 뿌림(6:7-9) / 목표를 향한 달리기(5:7) / 성령으로 시작하고 육체로 마치기?(3:3) / 의의 소망을 고대함(5:5)

06 의의 소망을 향한 목마른 기다림

로마서와 칭의 / 빌립보서의 P46 사본 / 갈라디아서의 칭의 / 의롭게 되기를 추구하다가...(2:17) / 간절하게 기다리는 의로움의 소망(5:5) / 칭의를 둘러싼 교리적 입장의 싸움 / 소망의 대상으로서의 칭의

07 왜 믿음인가?

친숙함의 베일 / '친숙한' 믿음 / 믿음과 성령(3:1-5) / 그리스도와 성령(3:13-14) / 그리스도와 성령(4:1-7) / 왜 믿음-그리스도인가?

08 미래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성령

성령, 현재적 칭의의 증거? / 성령과 의의 소망(5:5) / 자녀, 그리고 상속자 / 성령으로 태어난 상속자(4:21-31) / 성령에서 육체로? / 성령과 육체, 그리고 미래

09 왜 성령이 해당인가?

성령, 미래의 열쇠 / 성령은 사랑의 열매를 산출한다(5:5-6,13-15) / 성령과 육체의 욕구, 그리고 하나님 나라(5:16-26) / 뿌린 대로 거두는 삶(6:7-9)

10 성경을 주지 못하는 율법의 연약함

바울 공동체와 도덕적 관심 / 율법의 도덕적 실용성? / 갈라디아의 위기와 율법 / 바울과 율법에 대한 죽음 / 성경을 주지 못하는 율법 / 육체에 속한 율법

3부 성경과 율법

11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인가?

구원의 수단이 아닌 율법 / 범죄함 때문에 주어진 율법(3:19) / 죄의 지배와 율법의 연약함 / 임시직 간수로서의 율법 / 무기력한 수단에 의지하는 실수

12 율법을 벗어나 율법을 성취하는 복음

신중하게 해석해야 할 바울의 율법관 / 시내산 언약의 실패와 율법 / 실패한 율법 언약, 실패한 율법? / '율법'을 벗어나 '율법'을 성취하는 이야기 / 옛 언약을 벗어나 새 언약으로

13 바울의 성경 읽기 1: 아브라함

바울과 (구약)성경 / 아브라함과 칭의(3:6-9) / 약속이나, 율법이
냐?(3:15-18) /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3:16하)

14 바울의 성경 읽기 2: 두 어머니, 두 아들

섬겨야 할 율법? 들어야 할 율법?(4:21) / 두 아들, 두 어머니(4:22-24) /
"약속을 따라서" / 약속과 성령(4:28-29) / 육체와 율법 / 누가 상속자인
가? / 복음의 진리와 알레고리

4부 행복했던 그 때를 돌아보며: 바울의 체험적 호소

15 편지의 서두

편지라는 약식 / 편지의 서두 / 사라진 감사 / 도전받는 사도 직분 / 하나
님이냐, 사람이냐?

16 하나님이나, 사람이냐?

인식의 혁명 / 인식의 위기, 삶의 위기 / 바울과 갈라디아 신자들 / 자전
적 회고의 수사적 기능 / 바울 복음의 기원(1:11-12) / 하나님의 능력을
동반하는 복음 / 바울 복음의 '독자성' / 사람 아닌 하나님의 복음

17 바울과 예루살렘

두 바울 이야기: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 / 예루살렘 방문 이야기 / 첫 예루
살렘 방문 / 두번째 예루살렘 방문 / 거짓 형제 / 왜 할례가 문제인가? /
복음의 자유 / 지켜야 할 복음의 진리 / 동일한 은혜의 역사 아래서

18 안디옥 이야기

또 하나의 삽화

19 초심으로 돌아가라

시작과 끝 / 첫사랑을 잃을 때 / 신학적 회곡(3:1-5) / 회심 이전으
로?(4:9) / "나처럼 되십시오!"(4:12-19) / 바울의 연약함, 복음의 능력
/ 다시 처음부터?(4:9)

5부 다시 생각하는 갈라디아서

20 새로운 창조 이야기

편지의 결말(6:11) / '육체'의 위험성(6:12-14) / 죽음과 단절로서의 십
자가 / 십자가의 긍정 /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 새로운 창조, 새로운 삶

21 믿음으로 받는 성령, 성령으로 기다리는 의의 소망

율법의 행위들 / 율법 준수가 아니라 배타적 선민의식 / 믿음과 성령 / 왜
위기인가? / 삶의 문제로서의 구원 / 그렇다면 왜 할례가 문제인가? / 위
선적 삶, 참된 삶

22 그리스도의 형상 회복하기

위선적 영성의 무력함과 참된 영성의 능력 / 사라진 그리스도의 형상 /
회복해야 할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 자유, 사랑, 그리고 섬김 / 삶으로
고백하는 믿음

23 갈라디아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사심 없는 선행? / 순종의 열망 / 현실로부터 시작하는 생각 / 믿음의 상
상력을 고대하며 **≡**

1-5 복음의 선포는 단순한 언어 전달이 아니다. 복음은 깨달아야 할 교리도 포함하지만, 구체적으로 현재를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복음을 선포하는 '말'은 언제나 그 복음이 담고 있는 삶의 실재를 보여주는 '행위'와 분리될 수 없다. 복음을 듣고 믿는 과정에서 '행위'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의 신앙이다. 그럼 왜 '행위', '행동'이라는 말이 늘 율법과 등치가 되어서 평가절하되는 것일까?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행위는 "십자가"였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이 따르고자하던 행위는 "유대교적 율법주의"였다. 그러므로 바울 서신에서 "믿음"과 "행위"사이의 대조는 소위 말하는 "믿음"과 "믿음을 따라살아가는 삶"에 대한 대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진정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유대교에서 만든 율법의 세 부규정들"인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1 피더냐? '핀다' *ἐβάσκαυεν* 라는 말은 마술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표현으로, 마녀가 "악한 눈빛으로 주술을 건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4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고난을 받다 *ἐπάθετε* 라는 말은 복미에 서는 "경험하다"라는 말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영향으로 "성령을 체험한다"라는 말이 현대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ἐπάθετε* 라는 말은 신약성경이나 구약으로 올라가서 LXX에서 보더라도 긍정적인 의미의 "경험하다"라는 말로 사용되지 않는다.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받는' 것, 그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이이지, 결코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대상이 아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성령의 이끄심 아래에서 고난을 인내하며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6-7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이전이다. 아브라함의 믿음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 여기셨다. 바울은 할례가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것과는 관계가 없음을 이야기한다.

8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창 12:3과 창 18:18을 합성한 것이다. 바울은 이 말씀을 바울에게 '미리 전해진 복음'이라고 간주한다. 복음이란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살아 가지 않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복된 소식이다.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는 표현은 창세기에서 인용된 것으로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 복을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시는 복', '아브라함처럼 의롭데 부름받는 복'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아브라함처럼 제대로 된 삶을 이끌어 내는 열쇠가 성령이라고 말한다.

11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 바울은 신명기 27:26을 인용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4을 인용하였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레위기 18:5을 인용하였다.

13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율법 아래에 사는 것은 저주 받을 수 밖에 없는 삶이다. 신 21:23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심으로 그 율법이 말하는 저주를 "우리를 대신하여" 받았다(고후 5:21). 그리고 이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저주'라는 율법의 현실적인 결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율법 아래서의 삶과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14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속량의 목적 두개를 말한다. 첫번째는 "

3

❖ 갈라디아인들의 어리석음: 성령을 버리고 육체로?

¹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피더냐? ²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나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³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⁵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혹은 듣고 믿음에서나?

❖ 믿음의 모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이신칭의 ⁶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⁷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에게 미리 전해진 복음** ⁸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⁹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 그리스도 사건: 율법의 저주가 아브라함의 복으로

율법의 저주와 이신칭의 ¹⁰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¹¹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¹²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의 저주에서의 속량, 칭의, 그리고 성령** ¹³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¹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 약속은 율법에 우선한다

¹⁵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¹⁶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¹⁷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사백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¹⁸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 율법과 믿음

율법은 죄를 다루기 위한 것이지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다 ¹⁹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하므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²⁰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²¹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의 부정적 기능은 믿음의 긍정적 기능을 돕기 위한 것이다** ²²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²³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간혔느니라 ²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²⁵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²⁶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²⁷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²⁸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브라함의 씨, 유업을 이을 상속자** ²⁹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는 것이다. 두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 곧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한 것이다.

15 사람의 예대로 "인간적인 방식으로"라는 의미이다. 이 논리는 '언약' *διαθήκη* 이라는 말은 당시 일상적인 언어에서는 '유언'이라는 말로 사용되었다. 사람들 사이의 '유언'이 다루어지는 원칙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사람 간의 언약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17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사백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관계이다. 그보다 430년이나 늦게 주어진 율법이 이미 확정된 약속 언약을 무효화할 수 없다 (2:21).

19-29 바울의 말처럼 '의롭다'함이 율법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대체 '율법은 왜' 주어진 것인가? 아브라함 이래로 약속 언약이 확고히 정해진 것이라면, 굳이 율법은 주어질 이유가 없어던 게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 부분이다.

19-21 바울은 이 부분에서 네가지 논점으로 율법에 대해서 정리한다. 첫번째, 율법은 의를 이루는 기능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다루는 기능을 위해서 주어졌다. 둘째, 율법은 중재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주어진 것이다(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약속보다 열등하다). 셋째, 율법은 아브라함의 약후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의 '임시방편'이다. 넷째, '생명을 주는 능력'을 가지지 않은 율법은 생명의 약속을 이길 수 없다.

22-25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율법의 본래적 기능은 모든 것을 죄아래 가두는 것이다.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죄 아래 가두는' 일종의 간수와 같다. 둘째, 율법의 역할은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εις Χριστόν* 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이라고 번역을 하였으나, "그리스도 까지"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 **초등교사** *παιδαγωγόν* 당시 파이디고고스는 주로 교육받은 노예들이 많았는데, 주인의 어린 자녀들을 통제하고 훈육하거나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다.

26-28 옷 입었다 신분 및 삶의 방식의 변화를 표현하는 바울의 대표적인 표현방식이다 (롬 13:12,14; 엡 4:24; 6:11-17). 유대인/헬라인, 종/자유자, 남자/여자 등의 구분은 당시의 사회구조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틀이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 곧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서는 이런 인간적 구분이 전혀 무의미하다 (갈 1:6; 2:21).

❖ 설교 아이디어 노트

1 온유한 심령 온유함의 면모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2 짐을 서로 지라 고대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은 종의 역할로 인식되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법을 행하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즉, 짐을 서로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말은 직역하자면,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유대교에 바탕을 둔 기독교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과 의도적으로 대비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3-5 여기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자기 기만은 구체적 삶의 열매는 보여 주지 못하면서 자기 나름의 엉뚱한 기준으로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태도이다. 갈라디아서의 문맥에서 보자면,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들'을 자랑하기만 하면서 정작 모세의 율법은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들의 자기 기만을 겨냥한다.

6 함께 하라 '교제'로 번역되는 '코이노니아'의 동사형으로, 물질적 나눔 혹은 후원의 문맥에서도 교제라는 말은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7-10 이 구절은 갈라디아서를 관통하는 바울의 신학적 신념을 집약하는 대목이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그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므로 사람은 심은대로 거둔다"는 것을 말한다. 바울은 믿음과 은혜의 논리가 '행위 없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선언한다. 농사를 짓는 상징 언어를 통해서 바울은 '현재의 삶'이 농사라면, 우리 삶의 근거 혹은 방향이 될 '육체와 성령'은 삶의 씨를 뿌릴 밭과 같다고 말한다. 우리는 육체의 밭에다가 씨를 뿌릴 수도 있고, 성령이라는 밭에다 삶의 씨를 뿌릴 수도 있다. 선택은 자유이나, 이 선택에는 그에 상응하는 필연적 결과가 뒤따른다.

8 썩어질 것을 거두고 비유대인 신자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는 '지옥' 개념이 나타나지 않는다 (지옥은 복음서나 요한계시록 등 유대적 배경을 가진 글들에서 나타난다). 그 대신 죽음, 멸망 등과 같이 중말론적 파멸을 묘사하는 다른 개념들을 사용하는데, '썩어질 것'이라는 표현도 파멸의 연장선 상에서 보면된다.

10 기회있는데로 "기쁨으로 거둘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율며 씨를 뿌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면(시 126:5-6),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힘겨운 달음질을 포기하지 않는 인내다. 성령을 좇아 그 열매를 맺는 삶, 곧 선을 행하는 삶에 관해 말하면서 바울은 "지치지 말자"고 격려하고 권고한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 심지어 적대적인 원수들에게까지 선하게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예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아들이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다(마 5:44-45). 그러므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는 말은 믿음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유대감의 자연스런 표현이지 차별적 행동에 대한 주문은 아니다.

11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바울은 보통 편지를 구술했고, 다른 사람이 이를 받아 적는 경우가 많았다(롬 16:22). 갈라디아서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11절부터는 필경사에게서 펜을 받아 친필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다. 큰 글자로 썼다는 것은 강조의 표현이며, 그 만큼 애절한 심정으로 호소한다는 의미이다.

12-13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1:8-9; 5:10 참조

14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6

❖ 그리스도의 법

1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2**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 자기기만에 대한 경고

3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4**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5**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나눔

6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 뿌리는 대로 거두는 삶의 진리

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10**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 육체를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

11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12**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13**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 십자가를 자랑하는 바울

14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5**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 마지막 인사와 경고

16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7**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18**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하니라. 바울은 이미 2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라며 선언하였다. 이 곳에서 바울이 이 표현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바울과 세상의 상호적 죽음, 곧 관계의 단절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육체'적인 조건들과 가치들로 지탱되는 세상과 바울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다. "세상이 내게 대하여, 내가 세상에 대하여"라는 이중적 표현은 관계 단절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킨다. , 즉 "나는 아직도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겁

니까?"하는 꾸짖음이다.

❖ 설교 아이디어 노트

.....
.....
.....
.....
.....